

“출가·열반절 이렇게 정진하세요”

조계종 포교원·종신회 ‘지침서’ 내보

출가와 열반은 불자가 걸어야 하는 길의 시작과 끝이다. 불자들이 부처님이 출가한 날과 열반한 날을 각각 큰 명절로 기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출가열반절 특별정진 기간’은 3월 7일~14일이다. 이 기간동안 올바른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침서가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펴낸 ‘불기 2550년도 출가·열반절 정진법도 종합지침서’다.

출가열반절 지침서는 예년과 달리 불자들의 참여 확대, 사찰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세부 안으로 내놓았다. 예전에는 획일화된 방법으로 신도단체의 출가열반절 참여를 독려했다면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참 불자’ 양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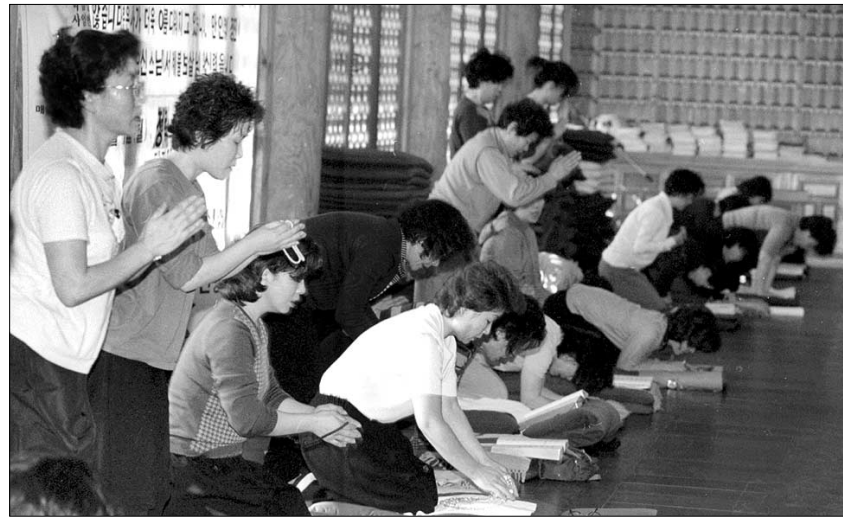
즉, 불자들이 지금까지 ‘무늬만 불자’였다는데서 벗어나 출가열반절을 계기로 각각의 근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행 풍토를 진작토록 하는 것이다.

지침서는 개인적 수행과 사찰 신도단체의 수행활동뿐만 아니라 직장직능 불자회의 출가열반절 안내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불자들이 출가열반절에 ‘신행’ 할 수 있는 방법들

- 발원문 쓰고 점검표 작성
- 오후불식·자비회향 실천을
- 각사찰 특별·수계법회 병행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해, 지도법사가 있는 수행단체라면 어디서나 출가열반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꾸렸다. 총 8일의 기간 동안 108참회법원 등의 정진 법회를 통해 출가자들은 물론 불자들이 스스로를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침서는 불자들에게 정진기간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 정해 정진 △계율, 발원문 등 작성하고 수행점검표 만들기 △신도 5계를 지키고 가족들과 경건한 시간 보내기 △오후불식 시행 △이웃과 나누는 자비회향 △1일 1선행 약속 등을 ‘제대로’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표참조)



부처님 출가열반절은 불자들의 수행풍토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명절이다. 사진은 2003년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출가열반절 정진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그러나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수행을 처음 해보는 불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의문 사항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서울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도선사를 시범 사찰로 선정, 출가열반절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조계사(02-732-2115)는 출가열반절 대법회, 봉은사(02-545-1448)는 사시기도와 1만 배 정진, 불광사(02-413-6060)와 도선사(02-993-3161)는 바라밀 특별 정진 출가열반절 정진법회와 참회법회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병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부산 반야사(051-646-6237)는 ‘자비도량법회’를, 통도사부산포교원(051-

816-2241)은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창원 성주사(055-262-0108)는 ‘니르바나 정진 대법회’를 병행한다. 또 강남포교원(02-539-2631)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경건주간’을, 서울 구룡사(02-575-7766)는 ‘발심 정진기도법회’를 각각 실시한다.

조계종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정진기간의 의미는 평소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신행’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돌아보고 수행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있다”면서 “포교당 중심의 갖가지 행사가 마련돼 있으므로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출가열반절 정진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출가열반 정진주간 일일 프로그램

날짜	프로그램
첫째날(출가일, 참회 발원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정진주간 동안 실천할 발원문 작성, 수행정진, 사경지, 수행일지 작성, 입계 법회 참석
둘째날(참회 보시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사경방법 공부 후, 사경지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종단홈페이지: 반야심경)으로 다운로드
셋째날(참회 지계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 발원문 봉독, 경전독송, 계율암송, 사경지 수행일지 작성, 부처님이 정한 계율 살피고 지키기
넷째날(참회 인욕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정진 중간 점검
다섯째날(참회 정진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수행 방법 연구-지속적인 수행으로
여섯째날(참회 선정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선행 실천 1가지 더하기
일곱째날(참회 지혜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회향 준비, 지금까지의 수행 태도 반성
여덟째날(열반일, 찬탄 회향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물결보시, 기도 공덕 회향, 사찰 회향법회 참석

* 문의: 조계종 중앙신도회 (02)733-7277

“패기 넘치는 국회불자회 만들터”

interview 국회정각화직원불교신도회 허태수 회장

“불자회원 배가 운동과 기초교리 공부를 통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국회불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정각화직원불교신도회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는 허태수(50·국회 운영위원회 심의관·사진) 회장은 외적 팽창과 내실화를 통해 국회불자회의 기반을 다져놓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허 회장은 올해 ‘젊은 불자 모임’을 통해 불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신입 직원 불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 불자회는 ‘나이 많고 고루한 모임’이라는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신도회는 현재 14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신도 배가 운동’ 등을 통해 잠재적 신도와 소극적 신도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허 회장은 특히 ‘늘 공부하는 불자’, ‘법당을 가까이 하는 불자’ 회원 양성에 도고심하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매



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국회법당에서 명선 스님(동국대 박사과정을 초청해 8개월 과정의 기초교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불자회가 활성화되려면 선지식의 가르침과 기초교리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기 동안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국회정각화직원불교신도회와 불자국회의원 모임 정각회 의원 등 30여명은 2월 27일 여의도 유가원에서 신년 모임을 갖고 임원기관인 국회에 신행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김강진 기자

“어르신들이 제겐 부처님이죠”

물리치료사 박재수씨

“아이구, 우리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하루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그 안에는 여러 편의시설이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있다. 바로 2층에 마련된 물리치료실이다. 뼈가 약한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부딪쳐서 생긴 ‘골병’부터 시작해서 선천적 장애어르신들의 재활치료까지 돕는 곳.

하루를 밝게 여는 물리치료사 박재수(38·법명 근행·사진)씨가 있어 어르신들의 얼굴도 웃음으로 물든다.

2003년 8월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씨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다. 소위 잘 나가는 큰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박씨. 2003년 대장장암으로 인해 다니던 병원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몸이 아프고 보니, 박씨 자신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됐다. 환자들의 의뢰를 받고 쓸쓸한 마음, 아픈 상처를 위로 받고 싶은 마음 등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항상 ‘소극적 불자’에 머물러 있던 그가 ‘활기찬 불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 이때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돌아가시는 분, 중증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 저와 같은 병실을 쓰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불자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박씨는 병원 입원기간 동안 ‘사람이 태어나서 마음 편하게, 신념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높은 보수를 받는 일 보다 더 값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퇴원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당시 센터보다 2배의 보수를 주겠다는 병원이 있었지만 박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택했다.

이렇게 인연 맺게 된 불교집안 직장인데다 불교 안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박씨를 베풀게 했다. 내친김에, 이제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학과 수업까지 듣고 있다. 바쁜 일정이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불교공부는 박씨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활의 10가지 중 8가지는 행복하다는 박씨.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박씨에게 때를 쓰고 화를 내는 어르신들 때문에 힘이 빠질 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생활 속 모든 것은 박씨가 ‘진정한 불교인’이 된 후부터 일상을 반추하는 거울이 됐다.

“어르신들이 제겐 부처님 같은 분들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셔서 나갈 때는 웃는 얼굴이 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무척 기쁩니다. 웃음이 불자 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보우승가대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고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일관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강의 내용

과정	내용	강의 내용	강의 과목	입학자격
승가학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립니다.		초발심사경론, 사미율의, 불전의식, 포교학, 상담심리학, 선어록, 불교학, 불교사, 태고종학, 다도, 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과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 사상, 역사, 포교, 불교복지 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 유식학, 선학개론, 화엄학개론, 기신론, 불교학, 불교사, 원각경, 금강경, 불교사회복지론, 생활역학, 다도, 태고종학 등	스님 및 일반 불자
범패학과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을 법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의식이론, 시련, 대령, 관음,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화청, 바라무, 작복무,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사경론,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 예술학과	사찰전래의 49제, 예수제, 영산재및 각종, 행사시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 양공(손가사계각), 지화(전통꽃), 계절비, 장엄서예(법서),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사경론,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 불자
특강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해드립니다		스님 및 일반불자
	생활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차택인 기초주공합등과 전문적인 인생 카운셀링등을 지도해드립니다		스님 및 일반불자

- 2) 교육과정 :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제제 운영과 정규학교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 3) 추가모집 : 2006년 3월 31일까지.
- 4) 구비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3장.
- 5)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 이내, 선착순접수함)
- 6)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 7) 통신강의 :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 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 8) 장학생제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9) 편입생제도 : 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자 또는 면접을 통하여 그 소양을 인정 받은자는 고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 11) 장소 : 서울 종로구 창신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 12) 특전 :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 13) 본교는 보우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 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응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보우승가대학 학장